THE ARK [아-크]

since 1979
Vol.424
2011.02.

The ARK는 노아의 방주란 뜻과
경북대의 완전한 복음화를 열망하는 뜻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경북대 SFC의 간행물입니다.

K.N.U. Student For Christ

목차

3 간사님 신년인사 • 김현정 간사

5 지난학기를 돌아보며...
• 박성옥 운동원 • 정용찬 운동원 • 이은경 운동원
• 이효진 운동원 • 윤재환 운동원 • 김정아 운동원

10 일년차를 섬기면서... • 박종열 운동원

12 가두모집 • 이은경 운동원

14 CF(Christian Fellowship) • 이상한 운동원

16 가스펠 미팅 • 김시은 운동원

18 경북대 SFC 2010년 국내비전트립 • 이효진 운동원

20 복학생 모임 • 이상한 운동원

21 학교주간, 주력운동 • 이재헌 운동원

22 경북대 SFC 11년 1학기 위원 소개

23 다시 아크지를 발간하면서... • 이상한 운동원

24 기도제목

발행일 | 2011년 2월 17일
발행처 | 경북대학교 학생신앙운동(SFC)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백호관 6층 604호
전화 | 010-6564-8502 (김현정 간사)
010-2079-5428 (이상한 위원장)
E-MAIL | happykhj1004@hanmail.net (김현정 간사)
sanghan21c@naver.com (이상한 위원장)
사이트 | http://club.cyworld.com/sfcknu
(또는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970698)
발행인 | 김현정・이상한
편집인 | 박성옥・이상한

간사님 신년인사

사랑하는 경북대 SFC 동문분들께 문안인사 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계속적으로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커지네요.^^

경북대학교 SFC를 담당하고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내기 간사에게는 감당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반면에 가슴 벅찬 일들도 경험하게 해 주셔서 눈물과 기쁨이 섞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동문 분들의 든든한 존재와 애정어린 관심이 저와 SFC 공동체에게는 아주 값지고 귀한 일임을 고백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접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날이 갈수록 캠퍼스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의 인격과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로 엮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기엔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통찰력을 가미한 사역은 새내기 간사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이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역을 하지 못함에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노라면 한 없이 겸손해 지기도 합니다. 캠퍼스와 저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던 부분들에 응답을 얻어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2011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운동원들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적절한 조언과 말씀으로 제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로 운동원들을 다듬어가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여러 기량을 닦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다지는 일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 할 능력자 보다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 내는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길 꿈꿔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다란 그림만 확보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진 못했습니다. 남은 방학동안 주신 지혜로 올 한해 사역의 내용이 계획되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문 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참으로 든든하고 기쁩니다. 각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선배님들의 소식이 후배들에게도 많이 전달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그리스도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2011년 1월 31일
경북대학교 SFC
담당간사 김 현 정 올림

후원계좌 : 대구은행 218-13-242994
연락처 : 010-6564-8502

지난학기를 돌아보며...

<10년 2학기 위원장 박성옥(06)>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늘 생각해 온 문구이다. 그래서 준비되기 위해 노력(?)도 해보았지만 무언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대~충, 두루뭉실하게, 흘러가는 대로...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두려움 한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 13:15)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면 내가 얼마나 더 희생하고 나의 시간이 소모될 것인지.. 진정으로 고침 받기를 두려워했었다. 지금도 충분히 내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두려움과 소극적인 성격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나에게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그 중 하나가 SFC 위원의 자리이지 않을까...

처음 대학교 1학년 때는 고신과 지역적인 벽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복학한지 1년 후 위원장이 되어버렸다. 위원장의 명찰을 달고 나서야 SFC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처음부터 알아가야 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운동원들의 눈치가 어찌나 보이던지... 위원으로서 일적인 부분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교회에서 받지 못한 훈련들을 통해 차곡차곡 배워 나갈 수 있게 되고 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힘도 들고 인간적인 마음도 생기고 가능하긴 할까? 의심도 있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것 하나로 위안이 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2011년도 하나님께서 경북대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한다.

준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10년 2학기 회계 정용찬(06)>

벌써 한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2학기때 회계로 섬기면서 참 많이 뺀질(?) 거렸던거 같아서 너무나도 공동체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회계의 일(돈계산)말고는 한 것이 너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윤동원들 앞에서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아마 핑계를 댄다면 기독교학생연합일이나, 교회 일이나, 학교 일로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핑계 였던거 같습니다. 이런 핑계들로 먼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왜 항상 소중한 것들은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

니다. 지금에서야 여러 임원들과 우리 윤동원들이 함께 했던 섬김들을 감사하며,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졌음을 믿고, 또한 받으실 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귀하게 세워진 우리 2011년 1학기 임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년 2학기 알돌장 이은경(07)>

지난 학기 우리 가족모임의 특징은 초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모임에 주로 참석하는 조원들이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가족모임을 할 때, 교재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후 적용해야 할 문제이므로 초신자가 대부분인 우리 조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문에 쓰인 성경 내용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성경의 기본 진리나 성경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식으로 모임을 진행했다.

평소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조원들이 모이면 언제나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고, 서로의 생각, 그리고 삶에 대해 나눔을 할 때는 솔직하고 진중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정말 좋았다. 매 주 모임 때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오히려 조원들의 사랑이 더 크게 돌아와서, 알돌인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알원들에

게 받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나에게 지난 학기는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업, 과제, 조모임들이 너무 많았던 때라 몸도 마음도 분주했고 많이 지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알원들에게도 생각만큼, 마음먹은 만큼 표현해 주지 못한 것들이 많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늘 미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알돌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고 힘이 되어준 우리 가족원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했고,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지친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10년 2학기 알돌 이효진(07)>

2학기 때 알돌로 섬기면서 제가 무엇보다 노력했던 것은 낮아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1학기 때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위원들에게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 2학기 때는 나의 생각 · 의견을 내려놓고 지체들의 마음에 귀를 귀울여, 친근하게 다가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제 모습보다 더 많이 재미있고 편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인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려다, 알원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장난이 심해질 땐 당황스럽기도 했었죠^^;; 그러면서는 이런 나의 모습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프리한 내 모습 때문에 알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도 프리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눔을 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바꿔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번 학기는 저에게 리더로서의 확고

하고 강한 면과, 친근하고 편안한 면을 어느 정도로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었던 시기인 듯 해요. 그 고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요.^^ 가족 모임을 인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고, 더 많이 섬기고 아껴주지 못해 알원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알돌로 섬기면서 이전보다 더 낮아지고 더 부드러워진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훈련되었기에 참 감사해요.^^

지현, 혁일, 동현, 봉진, 송정, 은재, 재헌, 지혜(장), 유현=> 사랑하는 우리 알원님들!! 한 학기 참 수고 많았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들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학업과 SFC 모임들로 채워진 스케쥴로 인한 부담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감히 넘치는 혈기로 기도도 없이 도전하였던 내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옆에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나의 동역자들. 귀하신 간사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보며, 나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한 지난 학기였습니다.

유난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하시고 나를 하나님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더욱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요즘입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 앞으로도 함께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며, 깊이 교제할 수 있는 201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학기 알돌 윤재환(06)>

작년 3월이었던가. 학원연합 큰모임에 참석하면서 대학생활 내내 열심히 도망쳐왔던 SFC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끝내 굴복하며, 학생신앙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알돌로 섬겼던 지난 2학기를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업과 교회 SFC 모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며 기꺼이 섬기겠다고 받

<10년 2학기 알돌 김정아(08)>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2학기는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참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돌이 경험도 없고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었는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참 좋은 조원들 덕분에 더 많이 웃고 즐거웠습니다.

매주 수요일 PM06:00 백호관,
늘 적극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센터모임으로 빠듯한 시간이지만 꼭꼭 함께 해 준 든든한 재휘오빠

처음부터 같이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제는 하나도 안어색한, 터프시커리출신 영효오빠

무언가 어색한 공기를 즐거운 웃음으로 바꾸어 준 분위기 메이커!! 아이디어뱅크 종열이오빠

역시 니는 내 친구다.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어! 까도남같아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민석이

하는 일도 많고 여러가지 바쁜가운데서도 꼭꼭 함께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너! 센스쟁이 가영이

일찍 수업끝나는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가족모임을 위해 기다려준 우리 경상대 차예련 창미

귀여움과 깊이를 동시에 지닌 우리가족의 귀염둥이 새내기 10!!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쁜 귀요미 찬희

그리고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문자로 응원도 많이 해주고 좋은말도 많이 해준 사랑이언니까지- :)
비록 다가올 새 학기에는 이제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생각날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 할게요 모두들 너무너무 보고싶네요 히히♥

일년차를 넘기면서...

생명과학 박종열(07)

간사님께서 일년차를 맡아보겠냐는 제안을 하셨을 때, 내 머릿속은 거부로 가득 찼었다. 3학년 2학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고, 4학년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스펙들을 갖추어야했기 때문이다.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일단락 지었으나 말 그대로 이 제안에 대한 확신을 기도응답으로 받아야겠다 싶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사실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기도하기 위해 수요기도회에 참석했다. 그 날 본문말씀이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며 마지막 유다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여러 개혁들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는데 그것은 자녀교육 즉, 후대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후배들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게 되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들을 모른 척 하지 않고 후배 양육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년차를 맡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년차 모임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첫모임에서 일년차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학업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며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15주 동안 할 것들을 정하자고 하였다. 어느 정도 틀은 마련해왔지만, 일년차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5주 동안 할 것들을 정하고 이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 결과 이들도 모임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하기를 힘쓰는 모습들을 보였다. 처음에는 본인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본인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일년차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랐다.
일인 일부장제를 주장하며 일년차 기장, 총무, 음악부장, 기획부장 등 여러 직책들을 나누어 맡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일학년 때부터 본인들이 무엇을 잘 하며 또 이를 통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학기 많은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일년차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내가 일년차 친구들을 챙겨주고 사랑하는 것 뿐 아니라 동시에 나도 이들에게 챙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역시 사랑은 주고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모임을 통해 한 학기를 돌아보며 리뷰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일년차 모임이 기다려졌고, 기대한 만큼 유익하고 즐거웠다고들 나눠주어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정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두모집

문헌정보학과 이은경(07)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 때문에 더 빛났던 2010년 2학기 SFC 가두모집.

이른 아침부터 형제들의 수고로 백호관 동아리방에 있던 무거운 테이블, 의자, 각종 홍보물 등이 제자리를 찾았고, 밋밋하던 테이블은 지혜와 영숀이의 센스 있는 테이블보 선택으로 화사하게 꾸며졌다. 정아가 집에서부터 들고 와 준 아이스박스 덕분에 우리 동아리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내놓을 수 있었고, 천막이 없어서 가두모집 때마다 고생했던 우리들에게 성옥오빠의 헌신으로 시원한 그늘도 드리워졌다.

그리고 이번 학기 가두모집 때 우리 동아리 부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천막 사방을 돌아가면서 붙여진 지난 학기 우리 경북대 SFC의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이었다. 꽃다발을 들고 선 졸업생 선배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서 있는 우리 윤동원들의 졸업식 사진, 함께 경주월드에서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던 사진들, 포항 바닷가에서 찍었던 CF 사진들, 여름방학 때 갔었던 국내 비전트립 사진……. 보는 사람마다 배꼽잡고 웃을 만큼 눈물나게 웃긴 사진부터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 사진들까지... 생각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는 눈길을 끄는,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미소 짓게 만들었던, 이 사진들을 가두모집 때 함께 전시해서 우리 SFC가 한층 더 특별해진 느낌이 들었다.

이번 가두모집 때는 기본적으로 동아리를 홍보하는 조그만 리플렛 외에도, 상한 오빠의 아이디어로 기독교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보았다.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동아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동아리 설명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설문지와 간단한 연락처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가두모집이 끝나고 작성된 설문지를 모아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점은 가두모집 때 외국인 학생들이 여러 명 왔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 학교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중국 학생들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가 가두모집을 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보여서 간단하게 우리 동아리를 소개해 주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주위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들의 도움과 바디랭귀지를 동원해서 부족하나마 우리 동아리를 설명해 주었던 것이 재미있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때 왔던 중국인 학생 중에서 신기하게도 그 가두모집을 계기로 큰모임 때 정말 찾아와서 지금까지도 모임에 잘 나오고 있는 학생도 있다. 우리 학교 SFC에 중국인 학생이 함께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고, 가두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SFC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좋았다.

지난 학기 가두모집을 함께하면서, 우리 지체들의 열심과 헌신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하게 여러 사람들이 가두모집을 계기로 SFC를 찾아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 은혜로웠다.

CF (Christian Fellowship)

전자공학부 이상한(05)

기다리던 CF~!
금요일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동일교회로 향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이야기 할 Warming up을 했습니다.

간사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친해지길 바래 영상" 시청.
10년 2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가진 CF라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곧 이어서 시작된 인간 윷놀이 !!

요즘 느끼는 거지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맨바닥에 몇번 구르다 보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안아픈데가 없습니다.

이어서 시작된 스피드 퀴즈와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는 눈을 가린채 조원의 그림만 보고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저희 조는 아주 탁월한 그림 실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림만 보고 간사님인 것을 맞췄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닐까요?

이후에 이어진 순서로는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께서 사오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조마다 동문 선배님 한 분을 모시고 각각의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분들의 SFC를, 또한 그 분들의 삶의 가운데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CF. 노는 것 입니다. 하지만 CF 안에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정말 노는 것으로만 끝날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지체로 모여 함께 어울릴 때, 그 안에서 누릴수 있는 우리들만의 특권이 있기에 이 날도 밤을 새며 최선을 다해 잘 놀았습니다~!!!

가스펠 미팅

생명과학 김시은(10)

안녕하세요.
몇 달 전까지 풋풋한 1년차였던 10학번 생명과학부 김시은 입니다.

2학기 때 SFC의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스펠 미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10년 11월 18일 기독 센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Gospel meeting 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누구에게 전하냐고요? 예, 바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1학년이라 처음 맞이하는 가스펠 미팅이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걱정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모든 경북대SFC 윤동원들이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1년차 얘기를 하자면요, '아카펠라'로 정하는 것조차 힘들게 정하여서 '아.. 잘 할 수 있을까?' 라며

많은 고민을 하며 더더욱 많은 연습을 하였고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떠올리면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더없이 즐겁고 값진 시간이었고 날이 갈수록 놀랍게 발전하는 저희의 아카펠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가스펠 미팅에 초대되어 오게 된 친구들 모두가 여기 하루 왔다 갔다 해서 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일 년에 두 번씩 '이웃 초청 잔치' 라고 해서 큰 행사를 엽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 주일날 그 행사에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루는 부모님께 '어차피 안 오시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시은아, 니는 저녁도 먹을 거면서 점심은 왜 먹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

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분들에게는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 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 가스펠 미팅도 비슷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당장 주님을 영접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 올 때 아흔아홉으로부터의 기쁨보다 더 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한 명, 한 명 초대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기쁜 사업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경북대 SFC 2010년 국내비전트립

심리학과 이효진(07)

일시 : 2010년 8월 16(월) ~ 19(목),
3박4일
장소 : 여수, 순천, 천안, 서울

<첫째날 효진's 하루를 돌아보며>
드디어 기대하던 비전트립 첫째날입니다. 애양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애양원에 갔을 때도 생각했던 건데, 손양원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고,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일.. 차마 인간의 사랑과 마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죠.. 나도 손목사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된 일정이었지만 내일 또 고신대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날 효진's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고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독립기념관과 고신대학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교회의 역사 사이에 겹치는 면도 많이 볼 수 있었구요.

또 내일 볼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내일은 좀 더 마음을 모아 훈련에 임하고, 선교사님 묘지와 제중원, 등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실제요,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귀한 것임을 확인,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셋째날 효진's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은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먼저 이용남 선교사님을 뵌 뒤, 황명아 간사님과 함께 양화진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분들의 피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실제요,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제중원과 이대 역사관,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에 제일 먼저 기여하신 분이 선교사님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포교가 아닌 의료, 교육선교로 들어오셔야 했으니 그렇겠지요.

또 예수가족교회의 수요예배 말씀이 너무 좋았었어요. 아무런 조건없이 거저 주신 구원,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씀.. 임팩트 강한 설교로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지요.^^

이제 곧 있을 모의장례식~~ 모두들 피곤해하고 지쳐있지만, 저는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스케줄표를 받아보자마자 기대감이 한 가득이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니 많이 아쉽네요. 내일까지 모든 일정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 모두를 다 받아가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아요♥♥♥

복학생 모임

전자공학부 이상한(05)

만 1년만에 재개된 복학생 모임, 이른바 복협~!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12월의 추운날씨도 불붙는 사나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성못에 있는 풋살 경기장에서 함께 공을 차며 뛰어 놀았는데, 10분을 뛰고 모두들 헥헥헥,,,
한 번은 07학번 호신이가 드리블 중이었습니다. 상대편인 10학번 혁빈이와 열심히 경쟁 중이었는데, 도저히 공을 못 뺏겠던지 갑자기 혁빈이가 뭐가를 공쪽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빛살처럼 꼽히는 혁빈이의 모자를 보고 모두들 발랑 넘어졌습니다. 군대에 가서 병장 쯤 되어 배워야 할 행동을 신입생인 혁빈이는 사회에서 벌써 배우고야 말았습니다.

축구를 마치고, 사실상 이번 복협의 꽃인 곱창을 먹으로 안지랑 행 버스에 몸을 싣었습니다. 아~ 맛있어라.

축구하고 곱창먹고, 볼링치고. 뭐가 알차게 시간을 보낸 느낌이 드는건 왜 일까요?

근래에 운동을 너무 안했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팔 다리 근육이 소리를 지릅니다.
학생신앙운동의 운동원들 답게 제대로 운동한 날이었습니다.

학교주간

기계공학 이재헌(06)

학교주간 그리고 예비알돌..

지난해 11월 22, 23, 25일 3일간 대구U주관으로 학교주간을 가지게 되었다. 각 연차별로 나눠서 간사님들의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예비알돌로 참석한 필자는 김주희 간사님의 강의를 통해 양육하는 알돌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다.

소그룹(작은모임) 인도법 강의를 들으면서 작은모임의 중요성과 교제의 힘씀에 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알돌은 알원들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려고 몸부림침으로 알원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력운동

기계공학 이재헌(06)

2010년 2학기 SFC의 주력운동 성(性)을 말하다.

지난 11월 23일 화요일 경북대학교에서 논술고사로 모든 수업이 휴강되어 효진가족은 시내에서 가족모임을 가졌다. 신나게 즐겁고 유익하게 교제를 나누고 어느덧 늦은 오후 SFC주력운동 성(性)에 관해 나눔을 갖는다는 소식으로 부리나케 가족원들 모두 학교로 향했다.

2010년 2학기 SFC의 주력운동은 성(性)에 관해서였다. 성(性)상품화와 혼전성관계 그리고 동성애에 관하여 전호신윤동원의 프리젠테이션과 조별나눔 그리고 발표를 가졌다. 필자는 동성애에 관하여 나누는 팀에 속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윤동원들이 이 세대의 성(性)의 문란함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변질되어가고 있는 성(性)문화에 대하여 둔감하였다. 필자가 속한 팀은 다른팀 보단 평균적인 연령도 높아 동성애에 관하여 깊이 나눌수 있었고 발표를 통해 이시대의 동성애는 금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 날 주력운동모임을 통해 이시대의 잘못된 성(性)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고 많은 윤동원들이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길 기대해 본다.

경북대 SFC 11년 1학기 위원 소개

위원장 이상한

전자공학 05학번 / 서신로교회

맡기신 모든 부분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송정

생물학 08 / 동일교회

SFC를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역 감사함으로 성실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이재헌

기계공학 06학번 / 명덕교회(대구), 창원성막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도 1학기 경북대 SFC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며 경북대 SFC 운동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운동하는 운동원이 되겠습니다.

서기 윤영효

수학과 06학번 / 삼승교회

안녕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렵니다~!

회계 임가영

생명공학 08학번 / 동일교회

한학기 동안 열심히 섬길수있도록 기도많이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당^^

다시 아크지를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11년 1학기 위원장으로 세워진 전자공학부 05학번 이상한 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아 내리는 것 처럼, 무척이나 추웠던 겨울도 이제는 조금씩 녹아짐을 느낍니다.
지난 학기 아크지 발간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날 동안 10년 2학기 사진과 사업들에 관한 글을 모으고 편집하는데 바빠서 놓치고 있었던, "왜 우리가 왜 아크지를 다시 발간하는가?" 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선배님들께서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크지가 선배님들과 현재 운동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길 원하는 저희의 바람이 있기에 다시 아크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크지에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또한 가정과 사회속, 각자의 자리에서 섭기고 계신 선배님들과 운동원으로 있는 저희들의 교류가 더욱 지속, 발전 되기를 바라기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께 더 많은 것과 좋은 것을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 예상했던 발간시일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성장된 모습으로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조심스레 여쭈어 봅니다. 아마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조언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안에서 주시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관심들이 SFC 안에서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는 한 부분이 됩니다.

선배님. 먼저 열어 놓으신 이 좋은 부분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와 사업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1년 2월 16일
편집인 이상한

기도제목

- 우리가 외치는 신조, 목적, 사명, 생활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도록.
-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며, 허락된 영혼을 마음으로 품는 일에 SFC 공동체가 사랑으로 잘 감당하도록.
- 11년 1학기 사역 가운데 계획된 모든 부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잘 이루어 지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 섬기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 김현정 간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재정적으로 늘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육이 강건하도록.
- 11학번 1년차 운동원들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각 운동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캠퍼스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학업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선배님들과 운동원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경북대 SFC 재정후원 : 대구은행 218-13-307342, 김현정

SFC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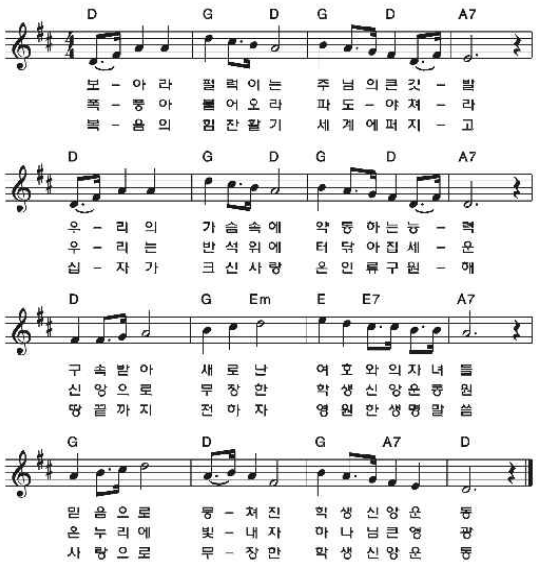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 하나님 중심
- 성 경 중심
- 교 회 중심

학신가